



분해성 제품만 전문으로 생산·판매

아산공장 준공, 내년 상반기 본격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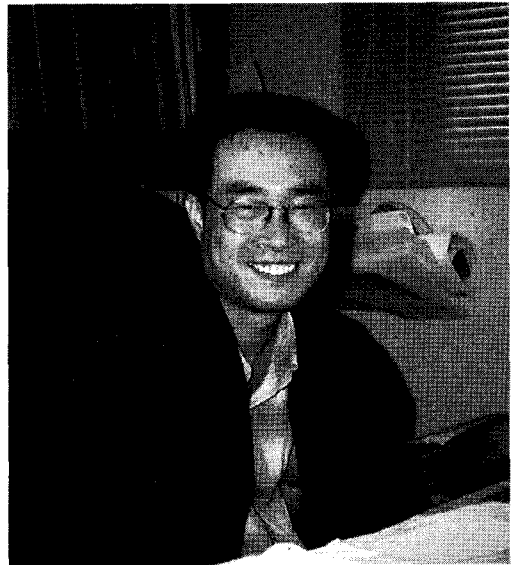
방 병 섭 / 남경포리머 사장

국 내에서 개발, 시판되고 있는 분해성 제품의 분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지루한 현상에 소비자들도 차츰 분해성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됐고 신뢰를 잃어가게 됐다.

국내 분해성 제품이 개발, 선보인 것은 70년대 후반 모 화학회사 개발팀에서 비롯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차례 개발제품들이 눈에 띄었으나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91년 7월15일 분해성 플라스틱업체인 남경포리머를 설립한 방병섭 사장은 전남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정책개발연구원에서 일하다 85년 정명플라스틱 개발실에서 PP 필름을 플렉시블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정명에서 실질적으로 필름을 접하며 기술적인 뒷받침을 쌓기 시작한 방 사장은 플라스틱 업체에 종사하고 있던 한 친구와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남경포리머 설립과 동시에 한 섬유업체로부터 분해성제품을 개발해 줄 것을 부탁받아 연구를 본격화했다.



▲ 남경포리머 방병섭 사장

독일로 섬유를 수출하는 군자산업이라는 한 업체가 섬유수출시 옷걸이와 필름이 환경에 유해하므로 다시 가져 갈 것을 독일측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당시 독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폐기물에 관한 각종 법이 발효되고 있어 수출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제는 분해성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편입니다. 2~3년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분해성 제품을 앞을 다투어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서히 그 움직임이 사라져 시장이 살아 나기도 전에 위축되고 말았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방 사장은 연구에서 시장확보까지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맥이 끊어져 국내 분해성 제품의 정착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원료를 개발하여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판매시 완벽한 기술을 전수해야 하는데 제품을 공급하는데 급급해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방 사장은 그간 국내시장 위주로 판매해 오다 최근 일본에 섬유용 PP백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96플라스틱박람회 에 참가할 계획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보다는 더욱 관심이 많은 일본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적극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해성 한 제품만을 취급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남경은 현재는 시장이 너무 작고 이제 개척하는 단계라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단순히 분해가 되느냐, 얼마만에 분해가 되느냐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 점차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더많은 투자와 연구노력으로 제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자신감과 정직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 사장은 영업에서 마케팅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 판매되고 있는 모든 남경제품에 회사 전화번호와 주소를 표기하여 언제든 소비자가 원하면 분해성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금년 6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으며 아산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PP라인 5대, PE 1대 라인을 조립중인 것을 포함해 총 18대 설치가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흐뭇해 하는 방 사장의 모습에서 그간 직접 생산하지 못하여 겪었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각 도시마다 영업본부를 두고 있는 남경은 지난달 17일 대전영업소를 개소하여 각 지역 판매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분해성 플라스틱 최고의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마지막으로 밝히는 방 사장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분해성 제품만을 취급하며 선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 사장은 부인과 5살인 아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으며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친숙함 때문인지 경영자라기 보다는 아직도 연구해야할 일이 많은 기술자의 이미지를 풍겼다. □

이선하 기자